



부산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5·18 33주년 기획전 '그날의 흘러송'을 관람중인 시민들.



강흥구 작 '도망자'



양계남 작 '나 그대되어'

부산에서 5월 광주를 기억하다

전시는 한장의 결혼 사진으로 시작됐다. 1980년 5월18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열린 박찬우(당시 광주 MBC근무)·조영희씨 부부의 사진. 최루탄 가스과 함께 눈물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광주항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진부터, 5월을 진지한 앵글로 담아낸 작품, 얼핏 생뿔뿔해보이는 회화화된 작품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 5월18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광주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린 대규모 기획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을 한 화면에 담은 영상 자료가 인상적이다. 전시장 입구에 걸린 박찬우씨 부부의 사진을 지나면 이어지는 건 5월의 현장이다. 사진작가 권순관이 재해석한 급남로 거리는 '늙은 남자의 목살을 잡고 화를 내는 남자'라는 작품 속에서 새롭게 해석된다. 스스로 한마리 상처받은 확으로 등장해 도청 분수대 등 5월 현장을 찾은 조습의 '달타령'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제로 오픈 렉처도 열렸다. 이영준(사진평론가·계원예대 교수), 전진성(부산교육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전정환(성균관대 국문과 교수)씨가 패널로 나서 '5·18 이미지와 관련된 놀라운 몇가지', '33년후, 광주의 문화정치학' 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강흥구(사진작가), 이광수(사학자), 김현호(사진평론가)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은사진미술관, 5·18민중항쟁 33주년 기획전 '그날의 흘러송'

생생한 오월현장, 사진·영상으로 보여줘... "아픈 상처 치유되길"

전시의 마지막 작품 역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는 축복받는 결혼식장이 아니라, 영정 속에서 외로이 웃고 있다. 사진작가 이상일이 찍은 '5월의 신부' 최미애다.

전시 제목에 걸린 '흘러송'은 참 아이러니한 노래다.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로 많이 알려진 이 곡은 아일랜드 민요다. 임신한 여인이 전쟁에서 팔다리를 잃고 돌아온 애인을 원망하며 부른 반전(反戰) 민요 '존 당신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가 원곡이다. 이 곡은 오월 광주의 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불렸고, 계열사의 선무방송을 통해서도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에서 들려지는 '흘러

19일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획전 '그날의 흘러송'(7월31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부산 고은사진미술관(관장 이상일)에서 만난 사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5월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오월 현장을 생생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그밖에 5월16일부터 22일까지 현장을 생생히 담은 당시 옛 전남매일(광주일보 전신) 사진기자 나경택과 중앙일보 사진기자 이상성의 '밀착'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전시장에서는 '사진과 기억: 서른 셋의 5·18, 사진의 기억과 상상력에 관하여 묻다'라는 주

'나비, 장미원에 날다'

조선대미술관 개교 67주년 기념 특별전

'미술관으로 나비가 날아들었다.' 조선대미술관이 개교 67주년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기획전 '나비, 장미원에 날다'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선대 출신으로 호남 화단을 이끌고 있는 진원장, 구미란, 김상수, 김해성, 박만수, 양계남, 정송규, 조윤성, 김대원, 김연수, 김영화 작가 등 97명이 참여한다.

조선대 장미원에서 열리는 장미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작가들은 화폭에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담은 장미를 그렸다. 장미는 작가들의 끊임없는 소재가 되는 꽃이기도 하다.

관람객들은 장미원에 만발한 장미는 물론, 미술작품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장미의 다양한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230-676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유현근 작 'Survival-crocodile'

'종이, 예술을 담다'

스페이스K-광주, '뉴페이퍼'전

스페이스K-광주가 다음달 18일까지 종이의 예술적 가능성을 탐험하는 '뉴페이퍼(Newpaper)전'을 연다.

전통적으로 종이는 드로잉이나 한국화에서 작품의 바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이 같은 종이의 역할에서 벗어나 종이 자체의 조형성을 발견한 작가 노상준, 송영욱, 신재현, 신진식, 유현근, 윤주, 정세인, 조미영 씨 등 8명이 참여한다.

접고 찢고 붙이는 기본적인 조형 수법 외에 새로운 종이의 성질을 이끌어낸 이들 작가들은 놀라운 테크닉과 상상력으로 종이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제시한다.

작가들은 골판지를 캔버스에 붙여 부조와 같은 느낌을 내기도 하고, 박스의 상표와 텍스트를 살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종이를 섬세한 조형물로 풀어낸 작가도 있다. 평면과 조각, 설치작업을 아우르며 종이 안에 내재돼 있는 미적 가치를 이끌어 내면서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문의 062-370-594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월의 역사와 진실 '문학총서' 완간

'5월문학총서'(사진)가 완간됐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오월정신의 전격화, 세계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발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4권 분량으로 완간된 '5월문학총서'는 5월의 역사와 진실을 문화적으로 집대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해 8월 간행된 5월문학총서 1차분에는 시와 소설이 수록됐고 이번 2차분에는 희곡(시나리오)과 평론집이 실렸다.

시 선집은 고은, 신경림, 정희성, 이시영 등 한국시단을 대표하는 원로, 중진 등 168명의 시 206편과 익명으로 발표된 2편의 시 등 총 20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소설선집은 송기숙, 함승원, 윤정모, 홍희담, 임철우 등 13명의 작가의 중단편 소



설 13편이 담겨 있다.

희곡은 연극(박효선, 임철우, 윤정환, 정경진, 기국서), 마당극(놀이패 신명, 박강의), 영화 시나리오(이정국) 등 13편이 망라되어 있다. 평론집은 새롭게 집필된 강형철, 김소연, 김형수 등의 글과 기존에 발표된 고은, 김형중, 방민호 등의 작품 13편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선철씨, 獨 윈스터음대 한국 작곡가 주간 초청

작곡가 김선철(사진)씨가 독일 윈스터 국립음대에서 열리는 한국 작곡가(20~24일) 주간에 초청됐다.

독일 윈스터 국립음대는 매년 '우리시대의 음악'을 주제로 각국의 작곡가들을 초청, 창작곡 연주회를 열고 곡 설명회를 여는 등 현대음악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음악가를 초청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김씨를 비롯해 작곡가 윤이상, 독일 브레멘 음대 박영희 교수 등 모두 8명의 작곡가의 작품이 초청받았다.

김씨는 이번 행사에서 피아노협주곡 '게르니카', 한국 고시에 의한 4개의 가곡, 첼로 독주곡 '엄마야 누나야', 소프라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등 4곡을 선보인다. 연주는

독일 윈스터 국립음대 현악 오케스트라와 재학생들이 맡았다.

김씨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했으며 폴란드 크라코프 음악원에서 세계적인 작곡가 렌데레츠키의 지도를 받았다. 주요 작품으로 5·18 기념 오페라 '무등동동'이 있으며 광주대 음악학과 겸임교수, T&T예술기획 대표로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